

‘추락천사·좀비기업·탄핵정국’ 일룩... 韓 성장 모멘텀 의구심

(투기등급 강등)

“‘먹튀 논란’마저 사치라는데...”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일한 글로벌 금융 CEO의 이야기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방향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락가락 정책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제 자본이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 다자보험그룹이 동양·ABL생명을 팔고 ‘엑소더스’ (대탈출) 행렬에 동참할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본 야마구치은행이 38년 만에 한국 철수를 결정했다. 그는 “한때 외국 자본에 ‘먹튀’라고 비난했지만 이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불안한 탄핵정국 속에서 성장동력까지 꺼지면서 먹을 게 없어졌기 때문이다. 먹튀 논란도 사치스러울 만큼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 대한 신용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요즘 한국 증시에서는 외국 돈줄의 ‘엑소더스’ (대규모 이탈) 현상이 뚜렷하다. 올해 들어서만 외국인인 코스피 시장에서 5조원어치를 팔았다. 더 이상 황금알을 낳을 경쟁력 있는 산업이나 기업을 찾기 어려워진 탓이다. 덕분에 시장에는 ‘추락천사’ (투기등급 신용 강등)와 ‘좀비기업’들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낫 놓고 있다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다.

◆빛에 짓눌리고, 트럼프에 차이는 기업들 ‘신용 경고등’

빛내서 버티는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기업 부채 부담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비금융기업 부채는 2015년 말 1621조원에서 작년 1분기 2743조원으로 10



코스피가 전 거래일(2528.92)보다 29.21포인트(1.16%) 상승한 2558.13에 마감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37.90)보다 9.05포인트(1.23%) 오른 746.95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증가(1461.8원)보다 7.3원 내린 1454.5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년도 안 돼 1000조원 이상 불어났다. 이는 주요 43개국 중 중국·미국·일본 등에 이어 9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은 93.1%에서 112.2%까지 늘어났다.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아 이자보상

관세전쟁, 고금리 등 경영환경 악화 한계기업 급증... 주식시장 직격탄 외국인, 올해에만 코스피 5조 매도

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도 증가 추세다. 예정처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 배율이 1 미만이고 업력 10년 이상인 기업은 2023년 3950개나 된다. 2015년 2688곳 보다 47% 늘었다. 같은 기간 GDP는 1740조원에서 2400조원으로 38% 증가했다.

이들이 끝은 아니다. 앞날은 더 안갯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에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

업들까지 생존을 위협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해온 대로 4일(현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캐나다·멕시코 제품에 대한 25%의 신규 관세가 발효됐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도 4일을 기해 발효됐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3국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기존 교역 물품에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해 왔는데, 트럼프의 조치로 3국 간 관세전쟁 발발이 현실화했다.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USMCA를 이용해 무관세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해 온 삼성전자·LG전자·기아·현대모비스 등 400여 개 한국 기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오는 12일부터 25% 관세 부과가 예고된 철강 업계(포스코, 현대제철)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이미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2월 누적 수출액은 101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068억 달러)보다 4.8% 감소했다. 수

출로 먹고사는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면 기업 신용도 흔들릴 수 있다.

◆기업 경쟁력 키울 해법 모색해야

흔들리는 기업 신용은 시스템 위기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의명을 요구한 국내 한 경제학자는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부채 축소→공급부족→기업투자 확대→경제 성장 및 기업매출 확대→기업 부채 축소’ 같은 레버리징 사이클은 사라지고 ‘성장 둔화 혹은 위기 발생→기업 부채 증가→기업투자 위축→구조조정 지연 및 공급과잉 지속→경제성장 및 기업매출 둔화→기업부채 증가’와 같은 디레버리징 사이클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활동이 위축되면 그 충격은 가계로 전이된다. 돈을 빌려준 은행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한은도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한계기업의 비은행권 자금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 등으로 한계기업 부실이 현재화되면 상대적으로 자본이 취약한 비은행권 중심으로 관련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자금이 우리 증시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유동성이 감소해 우리 주식시장마저 ‘좀비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디레버리징 사이클 악순환 초래 비은행권 중심 부실 우려 확산 ‘좀비기업 퇴출 등 구조조정 시급’

일각에서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예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다. 예정처는 “한정된 자원의 기업 대출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체질 개선에 사용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경제의 구조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좀비기업 퇴출 등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허정훈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기업운영보다 자산매각 집중... 사모펀드 민낯 드러나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MBK, 인수대금 절반 차입 총당 주요 점포 부동산 매각 후 임대 전환 적자 누적... 자구노력 없이 회생신청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결정이 후폭풍을 낳고 있다. MBK파트너스의 경영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타 업계에서는 법원 기업회생절차 심사 기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는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며 사실상 손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업계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MBK파트너스의 공격적 인수,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 책임론이다. 여기에 이번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이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2005년에 설립된 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운용사



서울 소재 홈플러스 매장 전경

로, 경영권 인수(바이아웃) 투자 전략을 기반으로 유통, 금융,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 지분 100%를 인수했다.

무리한 차입매수에 따른 공격적인 인수합병이었다. 당시 7조 2000억에 홈플러스를 사들이면서 절반이 넘는 돈을 차입으로 총당했다. 3조 1000억원의 자금을 은행권에서 대출받아 조

달했으며,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7000억원을 총당했다. 여기에 2조 4000억원의 자금을 블라인드 펀드에서 추가로 끌어왔다.

시작부터 잘못된 탓에 경영난이 지속적으로 깊어왔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MBK파트너스는 인수 당시 켜던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매출이 나던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치만을 판단해 점포 20여 개 팔았

다. 이후 매각한 점포를 임대로 돌려면서 지속적인 임대 비용을 만들었고, 여기에 2021년부터 홈플러스가 연평균 2000억원의 적자를 내며 문제가 번져온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이 파산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법적 보호 조치”라며 “대부분의 기업에게는 최후의 수단인데, 홈플러스는 부동산 자산도 있고 잉여 현금도 유입된다고 하면서도 선제적 조치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타 업계,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심사 기준 의문

같은 맥락에서 법원의 회생절차 심사 기준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곳은 회생절차 신청 전에 자구 노력을 요구하면서, 어떤 기업에는 부동산 자산이 4조가 넘게 있는데 자구 노력 없이도 하루 만에 회생절차를 승인하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홈플러스가 정말 펀더멘탈(기초 체력)에 문제가 없다면, 법원이 그냥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관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울회생법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5년간 접수된 법인회생 사건 중 건설업 회생 인가율은 59.5%로 가장 낮았다. 건설업 경우 10건 중 4건은 회생 절차 승인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유통업계, 줄줄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

유통업계는 후폭풍에 대비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 엠베서 더호텔, 아윌백, CGV, 빙스, 엔터시스 등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은 유통 기업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다.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결제된 금액 회수 지연 등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외에도 HDC 아이파크몰, 호텔신라 등이 홈플러스 사용권 중단을 협의 중이다. 현재 홈플러스와 상품권 제휴를 맺은 곳은 약 29개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신라면세점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중단됐고, 신라호텔은 사용 중단 여부를 홈플러스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돌입 후 신용등급을 A3-에서 D(디폴트 등급)로 강등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